

## 동부한농화학(주) 농업기술연구소

# ‘경영마인드’ 도입한 기술개발에 진력 함

명실상부한 농업 선도기업 연구소, 40여명 연구 위해 주경야독  
생력화·환경친화형 약제 및 고기능 농자재 개발, 규모만큼이나 성과 빛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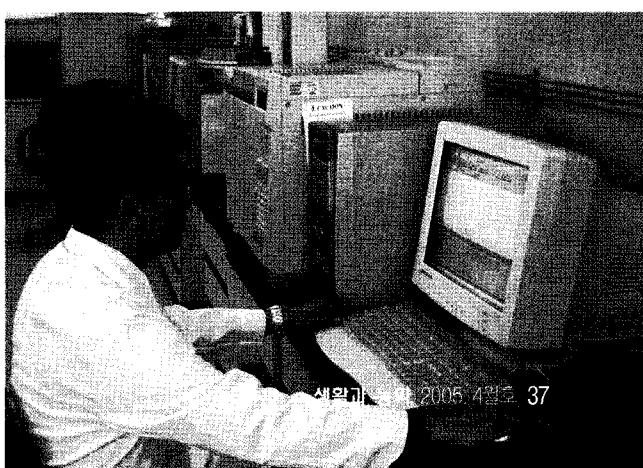
**농**약이 있음에 우리가 있다’는 반농약 농법 종사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소를 금키 어렵다. 과연 그들은 농약 없는 농사를 정말로 지어볼 참인가? 더 이상 과학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불행한 현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농약 개발 및 안전성 홍보를 위한 세 번째의 장. 한국과학기술의 메카,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동부한농화학(주) 농업기술연구소(소장 鄭奉眞)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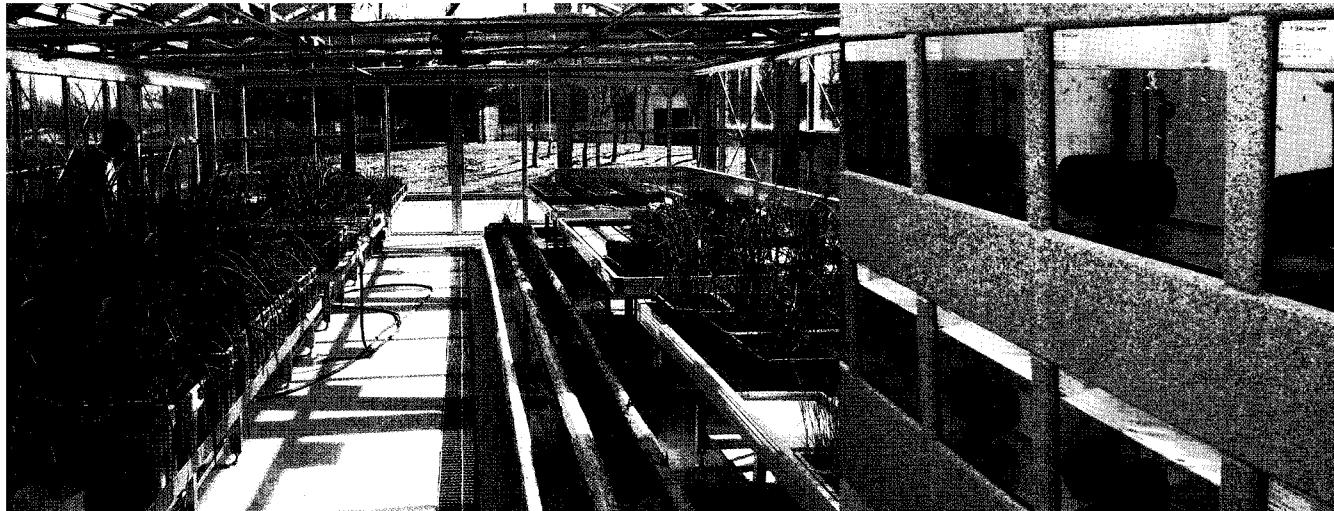
연구개발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다 기초연구부터 상업화에 이르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가능케 하며 주변 대학 및 관련 국채연구기관 등과의 유기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적지다. 또 연구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오직 혁신만이 살길이다’ 문구는 잠재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Metamifop · Bistrifluron 개발 등 성과 많아**  
“이젠 기술개발 분야도 경영마인드가 기초된

연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성공확률을 높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농업연구 분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GLP시스템을 도입하고 장기적 안목서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농약회사 역시 이런 대세에 합류해야 생존이 가능할 것입니다.” 생력화 및 환경친화형 작물보호제, 고기능성 농자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鄭소장은 명실상부한 농업 선도기업 연구소로서 변화와 신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말하고 혁신만이 능사임을 강조했다.

1967년 생물시험소로 모습을 갖춘 동부한농





화학(주) 농업기술연구소는 87년에는 한농중앙연구소로 과학기술처에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 97년에 농약 품목등록시험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02년에 어독성 등록시험 GLP인증 기관 취득 등 그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한 업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연구소이다.

어독성 실험실을 포함한 3백여평의 연구실과 4백50여평의 온실 및 제제실, 3만여평의 전답 및 과원 시험포장을 지니고 있으며 화학 생물 농자재 바이오티姆 등에서 40여명의 연구원들이 친환경 우수농약 개발 보급을 위해 주경야독 하고 있다.

동부한농화학(주) 농업기술연구소는 그 규모 만큼이나 성과도 적지 않다. 1983년 혼합 입제 농약 제조방법을 개발한데 이어 기능성 육묘 트레이기술 개발, 옥사지닐아졸계 살균제, 비티함유 미생물 살충제, 방출조절형 농약 조성물 및 제조방법, 신규 아크릴레이트계 살균제, 미생물 농약 등록 및 상품화, 제초제 Metamifop 및 저독성 살충제인 Bistrifluron 개발 등 무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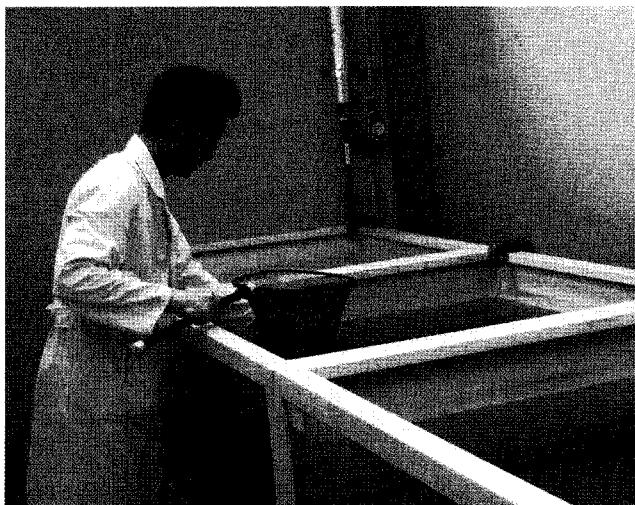
### 신규물질 창출로 해외시각 바꿔

타 연구소와의 차별화 전략을 묻는 질문에 鄭 소장은 “연구업무 수행의 6-sigma 적용을 통한 연구의 효율성 및 성공률을 제고하고 ERP시스템 도입을 통한 연구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

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연구시스템 구축”에 있다고 말했다.

鄭소장은 “이제 한국에서도 신규 물질이 나오는 나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해외시각을 전한 뒤 “그 동안 너무 단편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장래를 보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다”며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鄭소장은 “아직 인프라가 미비하지만 정부지원을 받는 등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좀 더 현실적 연구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와 함께 鄭소장은 “연구 인프라 역시 과유불급”이라며 “동부한농 수준이라면 적정수준이다. 더 이상은 사치다”고 말하는 등 시종 자신감으로 일관 했다.



농약의 필요성에 대한 우문에 鄭소장은 “농사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자재다. 한 마디로 농약 없는 농사는 불가능하다”면서도 “농약사용 분위기는 과거와는 천양지차다. 내부적으로도 고독성은 물론 문제농약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鄭소장은 “농업도 이익을 창출하며 영위해 가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이를 ‘업(業)’으로 보려 하지 않고 정책적 산업으로 보려 한다. 이 점이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농약산업 관련인들 또한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농약산업이 깊은 열정을 가진 일인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일인가, 경제적 엔진을 움직이는 것인가 측면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인식의 전환을 역설했다.

끝으로 소비자에게는 “최근 봄을 이루고 있는 친환경농자재들은 간단한 독성시험 조차 거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자재”라면서 “검증된 자재를 사용한 관행 농산물의 안전성이 소위 친환경농산물에 비해 결코 뒤질 것이 없다”고 말하고 농약안전성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Y

### 미니 인터뷰

### 鄭奉眞 소장 >>>>>>>>>>>



#### ■ 국내 농약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연구실정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비교적 순탄한 사업을 지속해 왔다면 앞으로는 국내기업도 자체적으로 신물질을 개발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과 함께 변신하지 않으면 양양한 전도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세한 기업현실을 감안, 정부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연구비를 지원 받는 한편 외부 산학연과의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 ■ 사회적 분위기 및 소비자 인식 등 농약산업의 전도를 비관적으로 내다보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나이갈 방향을 전망해 주신다면?

미래를 보는 시각은 다양할 것입니다만, 단정적으로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천양지차의 상황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농약산업이 선진국 산업이 아닌 만큼 이젠 국내시장 보다는 해외시장을 겨냥한 장기적 안목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또 친환경 생력화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궁극적으로 나이갈 방향이라 할 수 있는 GAP와 어떤 조화를 이루어 나가느냐에 따라 미래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올해 주요 계획은?

국내외 연구 강화를 통한 신규물질 탐색 및 개발, 친환경 농자재 및 미생물 농약 개발과 신규 제초제 Metamifop 및 저독성 살충제인 Bistrifluron의 국내외 개발 및 사업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 환경농업단체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한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하는데 진력할 생각입니다.